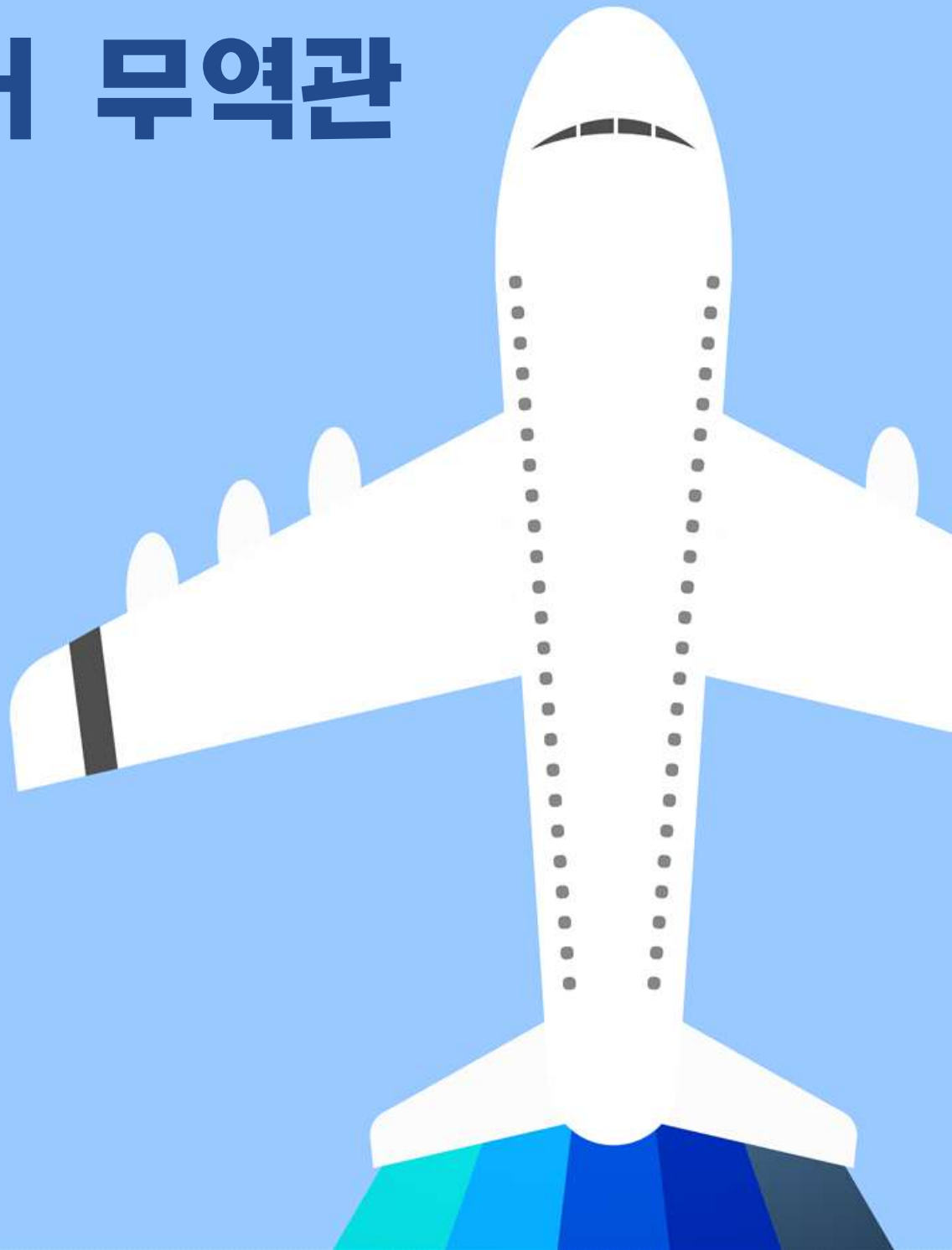


2022 해외출장 가이드

캐나다

밴쿠버 무역관

Vancouve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현지 체류 정보	1
II. 캐나다 경제 동향	3
III. 한·캐 교류 현황	9
IV. 캐나다 서부 경제 개황	11
V. 캐나다 서부시장 전망	16
[붙임] 현지 체류 참고자료	19

I. 현지 체류 정보

1. 현지 기후

□ 밴쿠버 날씨

- 밴쿠버의 기후는 온화한 편이며, 한 해 평균 강우량은 1,283mm 정도임.
가장 건조한 달은 7월이며 12월 평균 강우량이 많음

2. 체류 유의사항

□ 복장(의류)

- 북위 49도 위치, 해양성기후를 띄며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건조한 편. 일교차에 대비해 얇은 긴소매와 외투 준비 필요
- 금융계 종사자, 공무원은 일반적인 정장 차림(양복 바지, 와이셔츠)이나 넥타이는 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음식

- 밴쿠버 중심지 Robson Street를 중심으로 다수의 한식당이 있음
- 이외에도 시내 중심가에 대형 한국식품 Supermarket(H-Mart : 590 Robson Street)이 있어 컵라면 등 한국식품은 쉽게 구매 가능

□ 시차

- 한국 표준시간 KST -16시간 (서머타임 기간)*
 - 예) 밴쿠버 3월 12일 오후 5시 = 한국시간 3월 13일 오전 9시
 - * 서머타임 기간: 3월 12일(일) ~ 11월 4일(토)

□ 전기

- 전압(주파수) : 110볼트(60 Hz)
- 플러그 adaptor 휴대 필요(오른쪽 그림 참조)



□ 치안

- 밴쿠버 도심은 비교적 안전하나, 도심 동쪽 지역은 슬럼가로 노숙자(Homeless)들이 상주하는 곳으로 주의를 요함

□ 세금 및 팁 관행

- 모든 제품, 서비스 구입 시 12%의 세금 (주정부세 7%, 연방세 5%)이 별도로 부과됨
 - 식당 이용 시, 세금 포함된 요금의 10~15% 수준의 팁이 일반적임. 6~8명 이상 단체 손님 이용 시 16~18% 팁(Gratitude)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때도 있어서 명세서를 확인할 필요 있음

□ 현금 사용

- 신용카드는 대부분 통용되나, 비상시를 대비 현금 보유 필요

3. 주요 연락처

□ 밴쿠버무역관

- 주소 : 780-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V6C 3E1
- 전화 : +1-604-683-1820 / 팩스 : +1-604-687-6249
- 이메일 : ktc@kotrayvr.com

□ 밴쿠버 총영사관

- 주소 : #1600-1090 W.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 전화 : 1-604-681-9581 / 팩스 : 1-604-681-4864

II. 캐나다 경제 동향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캐나다 (CANADA)
수 도	오타와(Ottawa) (* '교역하다'라는 뜻의 원주민어 'adawe'에서 유래)
면 적	9,984,670 km ² (세계 2위, 한반도 45배)
기 후	온대성 대륙성(중부내륙지방), 해양성(태평양 대서양연안), 한대성(북극권)
인 구	3,852만 명 (2022. 3월)
연방구성	10개 주(Province) 및 3개 준주(Territory)
주요도시	Toronto(606만 명), Montreal(403만 명), Vancouver(247만 명), Ottawa (132만 명), Calgary (141만 명), Edmonton (133만), Quebec City (80만) 등
언 어	이중 공용어 (영어 58% 및 불어 22%)
민 족	영국계 (28%), 프랑스계 (23%), 기타 유럽국가 (15%), 원주민 (2%) 기타 아시안, 흑인, 아랍계 (6%), 기타 혼혈 (26%)
종 교	가톨릭(43.6%), 개신교(29.2%), 기타(6.7% 이슬람, 유대교 등)
국 체	입헌군주국 (영연방)
정 체	의원내각제 (양원제)
화 폐	캐나다 달러(dollar) (* 1 CAD ≒ 0.79 USD)
건국(독립)일	1867년 7월 1일(영국으로부터 독립)
국가원수 (실권자)	○ 국가원수: 영국여왕 Elizabeth II ○ 취임일: 1952.2.6
	○ 총독: Mary Simon (수상의 추천으로 국가원수가 임명) ○ 취임일: 2021.7월 (임기 5년+)
	○ 수상: Justin Trudeau (실권자) ○ 취임일: 2015.11.4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2. 최근 경제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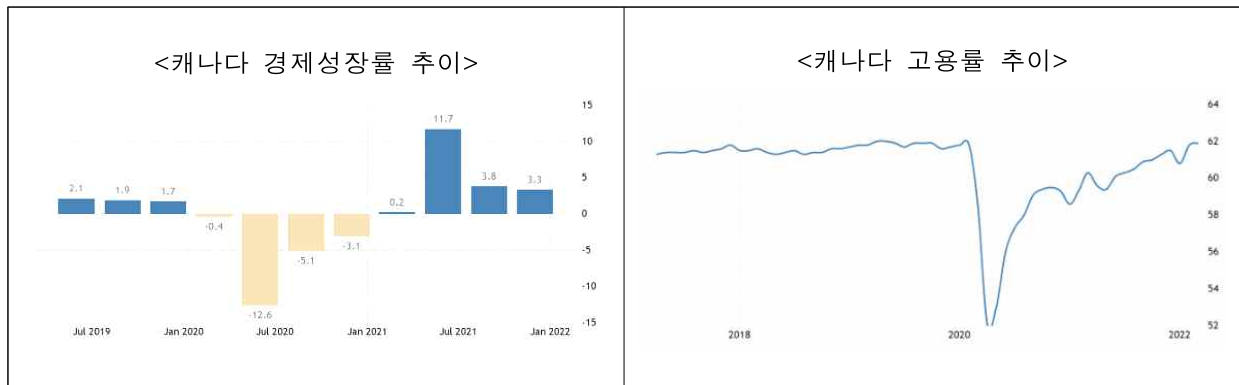
□ 캐나다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실질 GDP	USD	1.721조	1.741조	1.643조	1.990조
1인당 GDP	USD	45,368	46,212	43,278	50,722
실질경제성장률	%	2.4	1.9	-5.4	4.6
물가상승률	%	1.8	1.9	0.7	3.4
실업률	%	5.2	5.7	9.6	7.5
대미환율	CAD/USD	0.77	0.75	0.74	0.79
수출	USD	3,379억	3,361억	2,855억	3,801억
수입	USD	2,350억	2,300억	1,976억	2,375억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World Data Atlas, Trade Data Online, Bank of Canada(2022년)

□ 2022년 경제 동향

- 포스트 코로나 경기회복세 뚜렷. GDP 및 고용률 팬데믹 이전 수준 상회
 -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조치 이후 백신 접종률 제고, 경제 재개로 경기회복 기대
 - 2020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후, 2021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 2022년 4월 현재 3% 이상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



자료원 : Statistics Canada(2022년)

- 인플레이션 비상. 3월 캐나다 물가상승률은 6.7%로 30년 만에 최고치 경신
 - 캐나다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은 기름값(+39.8%). 부동산 커미션(+16.9%), 주택 수리(+12.9%), 자동차 구매(+7.0%), 주택(+4.1%) 등
 - 중앙은행, 물가 안정을 위해 경기 둔화 감수 의지 표명. 기준금리 2022년 말까지 2.5-3%대 인상 가능 전망
 - 한편 물가상승 압력은 최소 1~2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자산 가격은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하락할 것으로 분석

3. 캐나다 대외 무역

□ 수출입 동향

- 포스트 코로나 경제 재개 이후 2021년 교역규모 확대. 무역수지 흑자 전환
 - (무역규모) 전년 대비 25.0% 증가(수출 29.2%↑, 수입 21.0%↑)
 - (무역수지) 2021년 무역수지 흑자 전환(138억 2,200만 달러)

< 캐나다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

(단위: US\$백만)

구분	2018	2019	2020	2021
수출	450,959	446,193	389,695	503,562
수입	459,905	453,639	404,872	489,740
무역수지	-8,946	-7,446	-15,177	13,822

자료원: Trade Data Online(2022년)

□ 국가별 현황

- 주요 무역 대상국, ①미국 ②중국 ③영국 ④일본 ⑤멕시코 ⑥독일 ⑦한국 등임
 - (대美 무역) 2021년 대美 무역 흑자 1,426억 달러 기록
 - (대韓 무역) 2021년 대韓 무역 적자 32억 1,400만 달러 기록

< 캐나다의 10대 수출입 대상국 >

(단위: US\$백만)

수출				수입			
국가명	2020	2021	증감(%)	국가명	2020	2021	증감(%)
미국	285,522	380,194	33.2%	미국	197,690	237,521	20.1%
중국	18,855	22,378	18.7%	중국	57,039	68,647	20.4%
영국	14,851	12,938	-12.9%	멕시코	22,326	26,720	19.7%
일본	9,242	11,535	24.8%	독일	12,878	15,187	17.9%
멕시코	4,588	6,533	42.4%	일본	10,090	12,327	22.2%
독일	4,755	5,496	15.6%	이탈리아	6,714	8,354	24.4%
한국	3,511	5,033	43.3%	한국	7,157	8,247	15.2%
네덜란드	4,059	3,810	-6.1%	베트남	6,089	7,843	28.8%
프랑스	2,770	3,226	16.5%	영국	5,847	6,279	7.4%
벨기에	2,039	3,116	52.8%	대만	4,196	6,246	48.9%
총계	350,192	454,259	29.7%	총계	330,026	397,371	20.4%

자료원 : Statistics Canada(2022년)

□ 품목별 수출입

- 2021년, 원유, 목재 등 원자재 수출 급증. 승용차, 백신 수입 증가
 - (주요 수출품) 수출 상위 10대 품목 전년 대비 수출 증가(40.0%↑)
금(95%), 제재목(92%), 원유(72%), 정유(60%) 등
 - (주요 수입품) 수입 상위 10대 품목 전년 대비 수입 증가(21.0%↑)
백신(64%), 정유(61%), 원유(39%), 승용차(27%), 화물차(20%) 등
- 경제 재개 이후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원유, 정유 등 에너지 자원 교역 회복
 - 본격적인 경제활동 재개 이후 정유 등 에너지 자원은 물론 승용차, 화물차 등 자동차 수입 규모가 크게 성장
 -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2021년에도 백신 수입 증가세 지속. 또한 국내는 물론 美 주택건설 시장에서 제재목 수요가 작년에 이어 급증하며 수출 성장 견인

< 캐나다의 10대 수출입 품목 >

(단위: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0	2021	증감(%)	코드	품목	2020	2021	증감(%)
1	2709	원유	47,563	81,968	72%	8703	승용차	21,947	27,817	27%
2	8703	승용차	31,996	29,150	-9%	8704	화물차	12,369	14,791	20%
3	7108	금	7,736	15,050	95%	8708	자동차부품	14,370	14,212	-1%
4	2711	LPG	16,010	15,007	-6%	2710	정유	8,322	13,423	61%
5	4407	제재목	6,993	13,396	92%	8517	전화기	9,823	11,789	20%
6	2710	정유	7,184	11,487	60%	2709	원유	8,435	11,756	39%
7	8708	자동차부품	9,069	10,977	21%	8471	PC부품	9,841	11,459	16%
8	3004	의약품	5,448	8,530	57%	3004	의약품	8,492	9,467	11%
9	7601	알루미늄	5,716	8,111	42%	3002	백신	5,006	8,198	64%
10	2601	철광	6,296	8,065	28%	7108	금	8,700	6,532	-25%
합계			144,011	201,741	40%	합계		107,305	129,444	21%

자료원 : Statistics Canada(2022년)

4. 캐나다 시장 특성

□ 지역별 뚜렷한 산업구조

- 캐나다는 동, 서부 지역별 산업구조가 확연한 차이를 보임
 - 따라서 현지 시장 진출 시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필요

구분	주요 지역	GDP 비중	주요산업 및 특성
동부	온타리오, 퀘벡	약72%	- 제조업체(항공, 자동차, 철강 등) 집중 - 대부분의 기업 본사 소재
서부	BC, 앨버타, 서스캐처원	약28%	- 1차 산업 및 서비스업 발달 * BC주: 광업, 임업, 서비스업 * AB,SK주: 광업, 농식품업

□ 미국 의존성이 높고 완제품 위주의 시장

- 미국은 캐나다의 가장 큰 교역국, 전체 교역량의 약 66% 차지 (수출 77%, 수입 54%)
 - 미국 경기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며 다른 국가제품들이 미국을 통해 재수입되는 경우도 많음
- 캐나다는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못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완제품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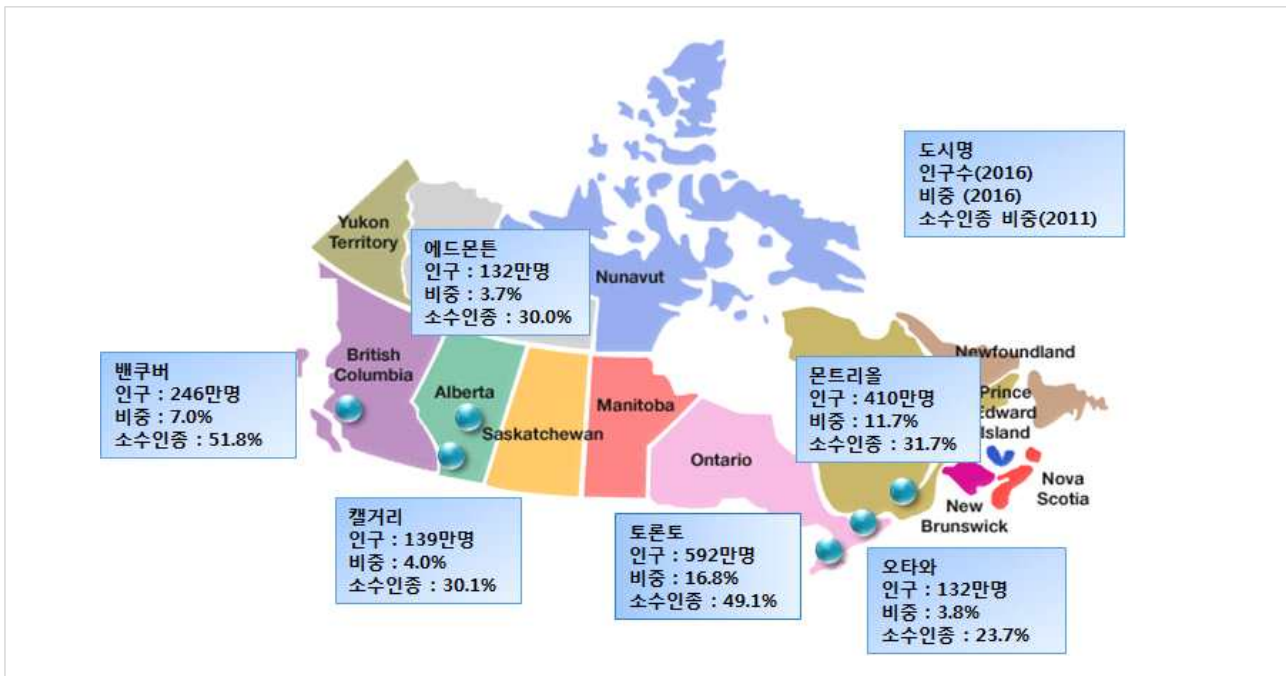
□ 제품별 유통망 통합 추세

-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제품별로 별도의 유통망이 존재함. 가전, 생활용품, 식료품, 의류, 주류 등 제품에 따라 상이한 유통망 존재
 - 가전: Future Shop, Radio Shack, Best Buy, Visions 등
 - 주류: Liquor Store
 - 생활용품: Canadian Tire, Rona, HomeDepot
 - 식료품: Loblaw, SupreStore, SafeWay, SaveOnFood, H-Mart(한인매장) 등
 - 의류: 백화점(The Bay, Sears, Zellers), SportsCheck 등
- 최근 유통망의 치열한 경쟁 및 실적 감소 등으로 유통망들이 주류(정부 독점)를 제외한 기존 취급하지 않은 제품을 취급 시작
 - 월마트, 코스트코, 홈쇼핑(The Shopping Channel) 등
 - 최근 대형 소매판매점 등도 직수입 및 유통 시작

□ 아시아계 이민자 시장 급성장

- 캐나다는 다민족주의(multi-culturalism)사회로 민족별 특성상품 시장이 존재하며 민족 간 소비패턴이 상이함
 - 오랜 이민역사를 바탕으로 한 독일, 이탈리아계가 대도시 상권 형성
 - 소비패턴 (유럽계) 스포츠, 레저, 문화활동에 대한 소비 강함 (중국계) 주택, 자동차 등 고액 소요 분야 소비력 강함
- 최근 중국, 인도계 이민 급증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에서도 이민계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개
 - BC주 식품업 바이어 상당수가 아시아계임 (밴쿠버는 아시아계가 주류)

<캐나다 주요 7대 도시별 인구 및 소수인종 비중>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가성비 높은 실용적인 제품 선호

- 고기능성 제품도 비싸면 구매수요 약해, 가성비 높은 제품 선호
 - 현지 시장에서는 소비재 제품의 경우 품질과 기능이 우수한 ‘고기능성’ 제품이라도 현지 소비자 눈높이 기준에서 가격이 높으면 구매 수요가 약해, 경쟁력 있는 가격에 실용성을 갖춘, 가성비 높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큼
 - 또한 식품의 경우 건강, 친환경 등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된 포인트를 지닌 제품이 시장에서 구매수요가 높은 편임

Ⅲ. 한·캐 교류 현황

1. 한·캐 무역 동향

□ 수출입 동향

- 2021년 한-캐 교역규모, 전년 대비 24.5% 증가한 132억 8,000만 달러 기록
 - (수출) 82억 4,700만 달러(전년 대비 15.2% 증가)
 - (수입) 50억 3,300만 달러(전년 대비 43.3% 증가)

□ 품목별 동향

- 상위 10대 교역 품목의 수출 및 수입 규모, 전년 대비 각각 26%, 55% 증가
 - 작년에 이어 백신 수출 급증. 원자재 수요가 늘어 LPG, 니켈 등 수입 증가
 - (주요 수출품) 백신(266%), 철강(885%, 후판), 건설기계(35%), 펌프(26%)
 - (주요 수입품) LPG(1,600%), 금(941%), 니켈(166%), 유채유(78%), 펄프(46%)

< 한국의 對 캐나다 10대 수출입 품목 >

(단위 :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0	2021	증감(%)	코드	품목	2020	2021	증감(%)	
1	8703	승용차	2,715	3,018	11%	2701	유연탄	786	926	18%	
2	3002	백신	85	311	266%	2603	동광	590	728	23%	
3	8708	자동차부품	206	224	9%	2601	철광	305	522	71%	
4	7208	철강(후판)	20	197	885%	7108	금	22	229	941%	
5	8517	전화기	211	177	-16%	2711	LPG	13	221	1600%	
6	7216	철강	81	164	102%	1514	유채유	93	166	78%	
7	8542	전자집적회로	83	145	75%	4705	펄프	93	136	46%	
8	7210	철강(평판)	71	142	100%	0203	돼지고기	98	122	24%	
9	8429	건설기계	85	115	35%	7502	니켈	41	109	166%	
10	8413	액체펌프	89	112	26%	4703	화학목재펄프	70	107	53%	
합계			3,646	4,605	26%	합계			2,111	3,266	55%

자료원 : Statistics Canada(2022년)

2. 한·캐 투자 동향

□ 캐나다의 對 한국 투자 현황(산업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 참고)

- (연도별) 2021년 전년 대비 72.8% 감소한 5억 달러 기록(4년 연속 증가 후 감소)
-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比 22.4% 감소한 38건 기록

(단위 : US\$백만)

연도	2018	2019	2020	2021
신고금액	410	635	1,847	502
신고건수	43	32	49	38

- (업종별) 운송 기계(1.6억 달러), 부동산, 전기·전자, 금융·보험, 의약, 정보통신 순임
- 특히 운송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부문 투자에서 고성장 기록

(단위 : US\$백만)

구분	2020		2021		증감현황(%)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운송용 기계	0	0	1	163	100%	163%
부동산	11	296	6	143	-45%	-51%
전기·전자	0	0	3	65	300%	650%
금융·보험	11	1,112	4	60	-63%	-94%
의약	1	20	1	52	0%	160%
정보통신	2	0.1	7	6	250%	5,900%

□ 한국의 對 캐나다 투자 현황(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동향 자료’ 참고)

- (연도별) 2021년 우리 기업의 대캐나다 직접투자는(신고기준) 전년比 33.1% 증가한 34.1억 달러 기록
-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比 7.6% 증가한 99건 기록

(단위 : US\$백만)

연도	2018	2019	2020	2021
신고금액	1,803	4,682	2,566	3,416
신고건수	103	115	92	99

- (업종별) 금융·보험업종 투자가 유일하게 성장하며 전년 대비 큰 폭 증가
- 유틸리티, 부동산, 광업, 제조 등 거의 전 부문에서 투자 감소 기록

(단위 : US\$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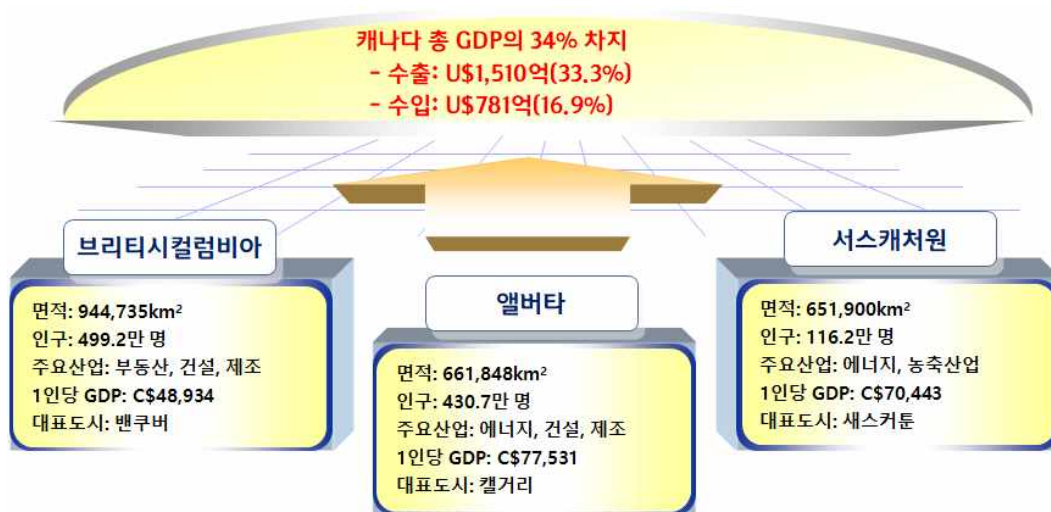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증감현황(%)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금융·보험	26	1,204	24	1,546	-7.7%	28.4%
정보통신	3	0	14	766	366.7%	76,600%
부동산	12	240	9	704	-25.0%	193.3%
운수/창고	1	200	4	220	300.0%	10.0%
제조	12	164	16	122	33.3%	-25.6%
유틸리티(전기, 가스)	8	601	7	35	-12.5%	-94.2%

IV. 캐나다 서부 개황

1. 지역 현황

□ 개요

- 캐나다 서부 지역 5개 (준)주 위치 ⇨ 하지만 경제·산업은 3개 주에 집중
 - (지리개관) 대한민국 면적의 23배, 인구는 1,100만 명 정도로 1/5 수준
 - (경제규모) 실질 GDP C\$6,600억(캐나다 전체 GDP의 34% 차지)



-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는 약 7만 1,750명(2016년 인구센서스 기준)
 - (모국어 기준) 영어(700만 명, 72.9%) vs 한국어(7만 1천 명, 0.7%)
 - (인종 기준) 코카서스인(710만 명, 74.7%) vs 한국인(8만 3천 명, 0.9%)

<加 서부 3개 주 한인 구성 현황(2016년 인구센서스 통계 기준)>

구분	BC	앨버타	서스캐처원	합계
언어 (모국어*)	영어: 68.9% 한국어: 1.1%	영어: 74.3% 한국어: 0.4%	영어: 82.4% 한국어: 0.2%	영어: 72.9% 한국어: 0.7%
인종	코카서스: 69.7% 한국: 1.3%	코카서스: 76.5% 한국: 0.5%	코카서스: 89.2% 한국: 0.2%	코카서스: 74.7% 한국: 0.9%

* 모국어: 출생 후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운 언어(First Language). 하지만 성장과정에서 모국어를 잃어버린 경우 새로이 습득한 Second Language를 모국어로 인정

□ 집권 정당 현황

○ 서부 5개 주 '5당 5색'

- (집권정당) 신민당(1) + 보수당(1) + 서스캐처원당(1) + 자유당(1) + 무소속(1)
- (정치성향) 진보성향(2) + 보수성향(2) + 무소속(1)

지역	수상		집권당	정치성향	정부형태
BC	John Horgan		신민당 (NDP)	진보	소수정부 (Minority)
앨버타	Jason Kenney		보수당 (UCP)	중도우파	다수정부 (Majority)
서스캐처원	Scott Moe		서스캐처원당 (SP)	중도우파	다수정부 (Majority)
유콘	Sandy Silver		자유당 (Liberal)	중도좌파	다수정부 (Majority)
노스웨스트 준주	Caroline Cochrane		무소속 (합의제)	-	-

□ 서부 정치 상황

○ 연방 정책 둘러싼 정치적 갈등 잠재

-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연방-주 정부, 서부 주 정부들 간 갈등 내재
- 주요 에너지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연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
<캐나다 연방 vs 지방정부 주요 에너지 정책 이슈>

주요 이슈	상세 내용
탄소세 부과	- 연방정부는 국가 탄소세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브런즈윅에 탄소세 부과 결정
송유관 건설	- 연방정부가 BC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랜스마운틴 송유관 확장 공사 승인
유조선 접안	- Bill C-48(유조선 접안 금지법안)이 캐나다 상원에서 통과한 것에 앨버타가 강력 반발

2. 경제 현황

□ 경제지표

- 加 서부 3개 주 평균 성장률(4.3%), 전국 평균 상회, 앨버타 성장률 전국 최고
 - (성장률) 앨버타(5.3%) > BC(4.8%) > 서스캐처원(2.9%)
 - (무역) 수출(U\$1,652억) > 수입(U\$853억) ⇨ 무역 흑자 지속
- <2021년 캐나다 서부 3개 주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브리티시콜롬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실질 GDP	C\$억	2,469	3,075	772
실질경제성장률	%	4.8	5.3	2.9
실업률	%	6.5	8.6	6.5
무역 규모	U\$억	958	1163	384
상품 수출	U\$억	437	919	296
상품 수입	U\$억	521	244	88

자료원: Statistics Canada, TD Bank(2022년)

□ 산업구조

- 산업별 GDP 기여도: 서비스 63.7% vs 상품 36.3%
 - (서비스) 부동산(C\$958억, 14.5%) > 의료(C\$431억, 6.5%) > 금융(C\$338억, 5.1%)
 - (상품) 광업(C\$1,190억, 17.9%) > 건설(C\$533억, 8.0%) > 제조(C\$449억, 6.7%)
- 업종별 추이
 - 全 산업 중 광업(10.0%), 의료(9.3%), 소매(7.4%), 교육(5.7%), 건설 & 제조(5.1%) 업종 중심 성장

<캐나다 서부 5대 산업 성장률(단위: C\$백만)>

#	산업	2018	2019	2020	2021	성장률('20-'21)
1	광업	123,613	121,527	108,196	119,023	10.0%
2	부동산	87,506	89,707	91,999	95,841	4.2%
3	건설	53,541	53,216	50,763	53,357	5.1%
4	제조	47,139	46,691	42,744	44,907	5.1%
5	의료	40,165	41,670	39,500	43,183	9.3%

자료원: Statistics Canada(2022년)

3. 무역 현황

□ 수출입 현황

- 총 교역규모(수출+수입) 전년 대비 28.3% 증가한 2,692억 달러 → 983억 달러 흑자
 - (수출) '21년 加 서부 지역 수출, 전년比 51.4% 증가한 1,838억 달러
 - (수입) '21년 加 서부 지역 수입, 전년比 30.9% 증가한 854억 달러
- 지역별로는 BC주가 3개 주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적자, 앨버타 주 흑자 규모 전국 최고
<2021년 加 서부 3개 주 수출입 현황(단위: US\$백만)>

지역	수출	수입	무역수지
BC	43,713	52,170	-8,457
앨버타	110,428	24,448	85,980
서스캐처원	29,675	8,853	20,822
합계	183,816	85,471	98,345

자료원: Trade Data Online(2022년)

□ 품목별 교역현황

- 주요 수출 품목 일차 산업 중심 원자재, 수입 품목 기계, 운송장비, 건설기기 등
 - (주요 수출품) LPG(117%), 유연탄(80%), 제재목(74%), 원유(74%), 폴리에틸렌(62%)
 - (주요 수입품) 항공기(443%), 트레일러(343%), 정유(61%), 타이어(55%)
- <2021년 加 서부 3개 주 10대 수출입 품목(단위: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0	2021	증감%	코드	품목	2020	2021	증감%
1	2709	원유	43,420	75,589	74%	2710	정유	4,388	7,044	61%
2	2711	LPG	6,447	14,013	117%	8703	승용차	1,719	2,360	37%
3	4407	제재목	5,101	8,893	74%	8471	PC부품	1,187	1,462	23%
4	2701	유연탄	3,391	6,092	80%	8517	전화기	909	1,095	20%
5	3104	비료	4,506	5,691	26%	8431	기계부품	729	938	29%
6	1001	밀	3,355	5,218	56%	8802	항공기	172	934	443%
7	1205	유채씨	3,961	4,232	7%	8716	트레일러	204	903	343%
8	3901	폴리에틸렌	2,473	4,003	62%	9403	가구	693	859	24%
9	2603	동광	2,570	3,376	31%	4011	타이어	544	843	55%
10	4703	화학목재펄프	2,659	3,279	23%	8429	불도저	533	828	55%
합계			77,883	130,386	67%	합계		11,078	17,266	56%

자료원: Statistics Canada(2022년)

□ 한국과의 교역 관계

- 韓, 2021년 對서부 교역규모 45억 8,800만 달러 ⇨ 전년 대비 41.3% 증가
- 교역적자는 14억 9,8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48% 증가
<韓, 對서부 3개주 교역현황(단위: U\$백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수출액	1,143	1,632	1,441	1,118	1,545	38%
수입액	2,663	2,797	2,589	2,127	3,043	43%
무역수지	-1,520	-1,165	-1,148	-1,009	-1,498	-48%

자료원: Statistics Canada(2022년)

- (지역별) 韓 수출액 규모는 BC(44%↑) > 앨버타(8%↑) > 서스캐처원(3%↑) 순
<韓, 對서부 3개주 수출현황(단위: U\$백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BC	963	1,418	1,220	934	1,347	44%
앨버타	152	189	194	154	167	8%
서스캐처원	28	26	26	30	31	3%

자료원: Statistics Canada(2022년)

- (품목별) 발전기(3,800%), 냉장기구(140%), 철강(후판, 344%), 철강(평판, 118%), 철강(형강, 111%), 건설기계(26%) 등 수출 급증
<한국 對 加 서부 3개주 10대 수출입 품목(단위: U\$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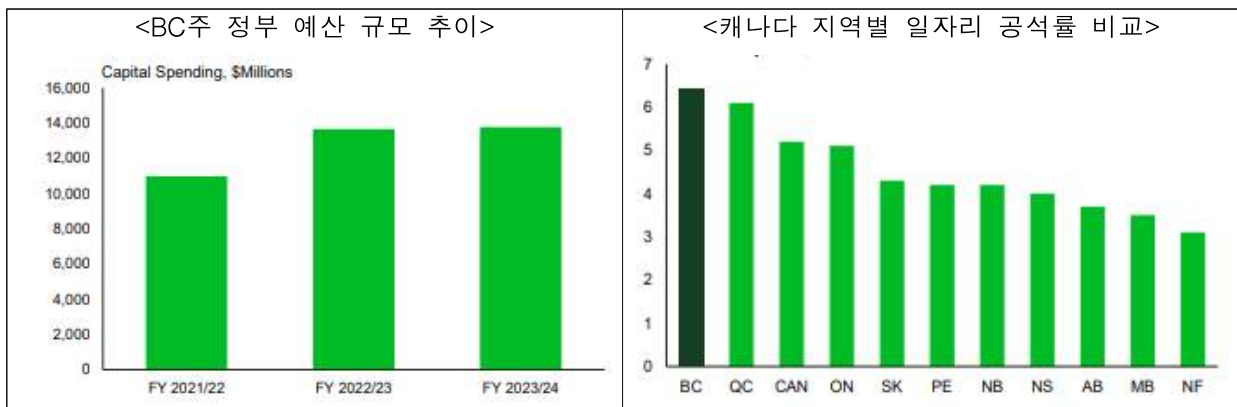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0	2021	증감%	코드	품목	2020	2021	증감%
1	7210	철강(평판)	49	107	118%	2701	유연탄	786	926	18%
2	7216	철강(형강)	45	95	111%	2603	동광	516	662	28%
3	7208	철강(후판)	18	80	344%	2711	LPG	13	221	1600%
4	8413	펌프	56	72	29%	1514	유채유	91	166	82%
5	8418	냉장기구	25	60	140%	4703	화학목재펠프	70	107	53%
6	7305	철강(파이프)	73	56	-23%	7502	니켈	34	93	174%
7	8429	건설기계	39	49	26%	4705	목재펠프	60	82	37%
8	8502	발전기	0	38	3,800%	2106	식료품	83	80	-4%
9	8431	건설기계부품	22	32	45%	4407	제재목	37	75	103%
10	3923	포장용기	23	30	30%	0202	냉동 쇠고기	21	69	229%
합계			350	619	77%	합계		1,711	2,481	45%

자료원: Statistics Canada(2022년)

V. 2022년 서부 캐나다 시장 전망

□ 브리티시컬럼비아(BC)

- 건설, 에너지 등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견인
 - (고용)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에 따른 소매업 성장에 힘입어 1월 이후 증가세 기록. 2월 추가 규제 완화로 고용 실적이 크게 개선됨
 - (건설) 2021년 지역 홍수 피해지역 인프라 재건 노력과 진행 중인 대규모 LNG Canada, Site-C 수력발전 댐 건설 프로젝트가 건설부문 성장 견인
 -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관련 부문 투자·생산 확대 전망. 참고로 천연가스 생산량은 가격 인상에 힘입어 2021년 10월까지 연초 대비 5% 증가 기록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2년)

-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내수 감소 등 경제 성장 걸림돌
 - 식품, 휘발유 등 연료유 가격 인상 여파로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 이 때문에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켜 내수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
 - 아울러 북미(캐나다, 미국) 지역에서 신규 주택 착공률이 감소할 전망이어서 BC주 목재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장 분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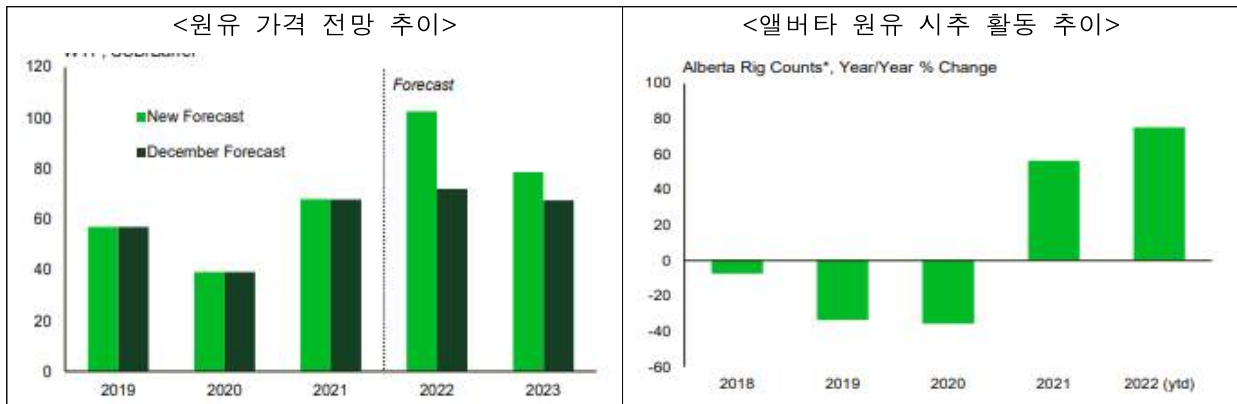
<BC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21	2022	2023
실질 GDP(%)	4.8	3.8	2.6
실업률(%)	6.5	4.6	4.7
신규주택착공(천 가구)	47.7	36.6	35.3
주택 거래(%)	32.8	-11.0	-6.1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2년)

□ 앨버타

- 앨버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에 고성장 전망
 - 앨버타가 원유,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TD Bank에서는 올해 3월 앨버타주 성장 전망치를 지난 12월 이후 5.6%로 상향 조정함
 -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에너지 원자재(원유, 가스) 가격은 올해 하반기와 2023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완만한 감소세 예상
- 원유, 가스 생산 확대 전망
 -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정 수가 2021년 3월까지 전년 대비 거의 50% 증가하였으며, 앨버타주의 올해 원유생산량은 200,000배럴 추가 증산이 예상됨
 - 천연가스 생산량도 올해 초 이미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해 올해 증가가 예상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2년)

-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지원 강화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돼, 앨버타 정부는 연료세 부과를 잠정 중단하고 관련하여 약 13억 달러의 추경 예산 편성
 - 또한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전기 리베이트, 가스 리베이트 등 지원 정책 추진

<앨버타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21	2022	2023
실질 GDP(%)	5.3	5.6	3.9
실업률(%)	8.6	6.2	5.5
신규주택착공(천 가구)	31.9	30.4	29.3
주택 거래(%)	53.5	23.9	-22.2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2년)

□ 서스캐처원

- 서스캐처원, 원유, 밀, 칼륨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의 최대 수혜자
 - 올해 초 서스캐처원주의 2022년 실질 GDP 성장률 예측치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상향조정됨
 - 수출 품목의 다양성에 힘입어 서스캐처원은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의 최대 수혜자임
 - 올해 시추 장비 수가 전년대비 평균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모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밀 등 농산품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에 농업 부문 역시 높은 수출 성장과 수익 달성이 기대됨
 - 또한 서스캐처원의 주요 수출품인 칼륨 또한 전 세계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2년)

- 정부 지원 확대, 주택 시장 호조 예상
 - 정부 수입 증가로 지역 내 정부 투자 및 지원 증가 예상. 올해 공공 부문 투자는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임
 - 주택 시장에서는 작년 Saskatchewan의 주택 판매가 캐나다 평균 성장률을 추월하였고, 올해 초 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세이지만 하반기 경제 상황과 저렴한 주택 가격으로 인해 남은 기간 판매 성장률이 전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

<서스캐처원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21	2022	2023
실질 GDP(%)	2.9	4.8	3.4
실업률(%)	6.5	4.8	4.9
신규주택착공(천 가구)	4.3	4.2	4.4
주택 거래(%)	24.1	-10.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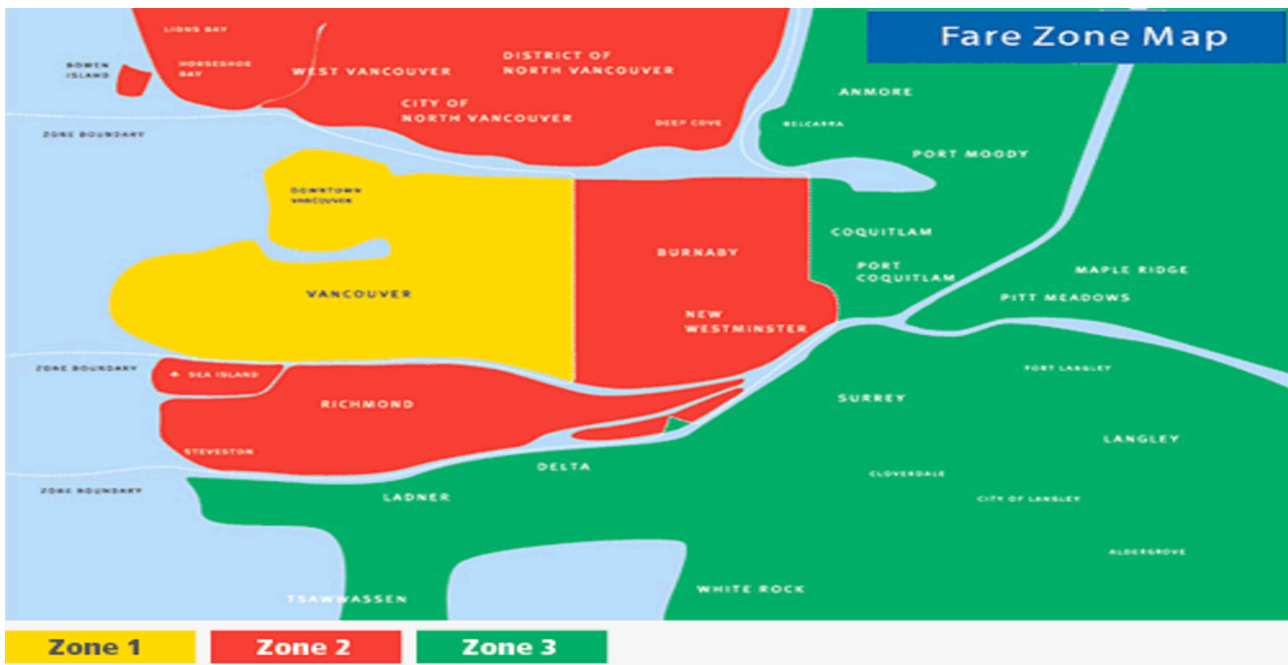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2년)

[붙임] 현지 체류 참고자료

☐ 대중교통

- (스카이트레인, 기차) 밴쿠버의 교통체계는 전체 광역밴쿠버를 3개의 존(Zone)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C\$2.75(1존)~C\$5.50(3존) 가격의 한 장의 티켓을 구입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90분간 모든 교통수단(버스, 스카이트레인, 수상버스(Sea Bus)을 이용할 수 있음. 평일 오후 6:30분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존에 상관없이 1존 가격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

<광역 밴쿠버 대중교통 요금 존(Zone) 안내도>



- (택시) 호텔 및 도심 외각지역에서는 콜택시를 부르는 것이 좋으며, 기본요금은 C\$3.20부터 이후 54.44미터 마다 \$0.10씩 과금됨. 대개 요금의 10%의 금액을 택시 기사에게 팁을 주는 관행이 있음.

※ 주요 택시: Yellow Cab(604-681-1111), Vancouver Taxi(604-871-1111)

□ 주요 명소

○ 스탠리 공원 (Stanley Park)



- 다운타운 서북쪽 위치, 면적 400만m², 뉴욕 센트럴 파크의 1.1배
- 1888년 당시 총독인 스탠리 경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 해안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수족관 공연장, 수영장 등 자연과 함께 다양한 활동 가능함
- 주요 포인트: 토템폴(장승), Prospect Point(전망대), English Bay

○ 잉글리쉬 베이 (English Bay)



- 다운타운 서쪽 끝자락에 접하고 있어 해변과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음
- 8월에는 국가별 불꽃놀이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림

○ 그라우스마운틴 (Grouse Mountain)



- 노스밴쿠버 위치. 해발 1,200m. 호텔에서 30분 정도 소요
- 여름에는 트레킹, 겨울은 스키 등 다양한 활동 가능
- 정상에서 밴쿠버 다운타운을 비롯한 전경 관람 가능 (정상까지 곤돌라 탑승)
- * 곤돌라는 15분 간격 운행하며, 최대탑승인원 100명 이상

○ 밴쿠버 아트갤러리 (Vancouver Art Gallery)



- 원래는 대법원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1983년부터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시작
- 빅토리아주 의사당과 페어몬트 엠프레스 호텔을 설계한 래트버리에 의해 설계된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
- 회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작품과 BC주 출신 아티스트인 에밀리카의 작품 다수 전시

○ 개스타운 (Gastown)



- 다운타운 동남쪽 위치, 밴쿠버 발상지로 알려짐
- 1867년 영국 증기선 선장이었던 존 데이튼이 정착, 최초 술집을 개점, 그의 별명인 Gassy Jack이 알려져 개스타운으로 불리게 됨
- 옛 밴쿠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기념품 가게, 특색 있는 상점, 개성 있는 식당 다수
- 주요 포인트 : 증기시계(15분마다 증기배출), 개시잭동상

○ 그랜빌 아일랜드 (Granville Island)



- 다운타운에서 Granville Bridge를 지나 남쪽에 위치
- 원래 공장단지였으나 리모델링 후, 관광지로 거듭남
-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접할 수 있으며, 기념품가게, 갤러리 소재
- 주요 포인트: 퍼블릭마켓(현지 시장)

○ 휘슬러 (Whistler Mountain)



- 밴쿠버 북방 120km 지점에 위치한 세계적 스키 관광지
- 스키장은 매년 11월부터 5월 중순까지 개장되며 여름에도 휴양지로서 관광객을 위해 산 정상까지 곤돌라 운행

○ 해리슨 온천 (Harrison Hot Springs)



- 밴쿠버시 동쪽으로 12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황 온천

□ 주요 식당 리스트

구분	상호명	전화	주소
한식	수라	604.687.7872	1518 Robson St., Vancouver
	장모집	604.687.0712	1575 Robson St., Vancouver
	북경 반점 (한중식)	604.629.8822	1638 Robson St., Vancouver
중식	Kirin Restaurant	604.682.8833	1172 Alberni St., Vancouver
	Dinesty	604.669.7769	1719 Robson St., Vancouver
일식	Aki	604.682.4032	1368 W. Pender St., Vancouver
	Kamei Royale	604.687.8588	1066 W. Hasting St., Vancouver
양식	Keg Steakhouse	604.685.4388	1121 Alberni St., Vancouver
	Cactus Club Cafe	604.687.3278	1136 Robson St., Vancouver

□ 주요 한국 식료품점

상호명	전화	주소
H-mart(다운타운)	604.609.4567	590 Robson St., Vancouver
H-mart(코퀴틀람)	604.939.0159	100-329 North Road, Coquitlam
한남수퍼마켓	604.420.8856	106-4501 North Road, Burbaby
김스마트	604.872.8885	523 E. Broadway, Vancouver

□ 주요 여행사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하나투어	604.321.8384	103-4501 North Road, Burnaby
OK투어	604.893.8687	9920 Lougheed Hwy, Burnaby
KJ투어	778.241.6367	407-3105 Lincoln Ave, Coquitlam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